

# 옛 인물에서 배우는 오늘의 세상이치

중국 고전과 역사인물들 새롭게 조명... 현대적 인간관계의 덕목 제시

출판가에 옛것을 새롭게 익히자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열풍이 불고 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최근 이미 선보였던 고전을 새로운 번역으로 완역해서 재출간하거나 기준에 알려졌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평가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어 주목된다.

## 중국 권력사 재해석

옛것을 바라볼 때 독자들 입맛을 가장 당기는 소재는 중국 역사 속의 사건과 인물들이다. '권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중국의 권력사를 재해석한 《권력장》을 비롯하여 《천하경영》, 《난세를 건너는 법》, 《인간 조조》, 《인물로 읽는 사기》(전3권) 등이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책.

《권력장》(곽준복 지음, 김영수 옮김, 푸른숲)은 중국 역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권력 행사 유형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올바른 권력행사 방법을 제시한 역사서다. 요·순 시대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중국 정치사에서 황제와 재상, 관리들이 권력의 올바른 행사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방대한 사료를 통해 살피고 있다. "군주가 신하를 자신의 손발처럼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의 심장처럼 여긴다. 군주가 신하를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면 신하는 군주를 한갓 나라 사람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군주가 신하를 쓰레기 취급하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 보듯 한다"는 이야기는 비록 군주와 신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보편적 논리다.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권력과 권력행사의 관계를 통해 오늘날 필요한 인간관계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장》의 묘미다.

《난세를 건너는 법》(오수형 편역, 문학과지성사)과 《천하경영》은 문학작품을 통해 역사적 인물을 재평가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난세를 건너는 법》은 제갈량의 글과 그의 이름을 빌려 세간에 크게 유행한 글을 함께 엮은 '제갈량 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 후한 말기에 태어나 이른바 삼국시대의 한 주역으로서, 천하의 온갖 이치를 꿰뚫는 총명함과 신하로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있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현대적 시각에서 바라본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위기의 시대를 이겨낸 인물의 삶 속에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려는 독자 요구가 맞아떨어져 당분간 이들 책은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었던 제갈량. 그의 문집을 통해 보는 제갈량은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그려졌던 것보다 훨씬 인간적이다. 이상은 원대하였고 실천은 근면하였던 그의 면모가 진솔하게 그려지고 있다. 저자는 단순히 제갈량의 글을 묶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난세를 건너는 법》의 후속작으로 출간된 《천하경영》(오수형 편역, 문학과지성사)은 조조의 삶과 문학을 다룬 책. 여기서는 간교한 피만을 지녔을 뿐 덕이나 인간성은 없는 인물의 대명사로 통하는 조조의 색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비록 그가 수많은 희생을 초래하는 무력을 사용하면서 전통적 덕치의 방법을 상당 부분 외면하였지만, 어지러운 시대에 응지를 지니고 태어나 천하통일에 매진, 결국 중원을 통일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낸 큰 인물이었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하지만 《난세를 건너는 법》과 《천하경영》은 문집 위주로 엮여져 해당 인물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간 조조》(이재하 지음, 바다출판사)는 '조조'라는 인물 연구서로 손색이 없다. 문학·통치철학·생활태도 등 모든 면에서 새롭게 보는 조조이야기이기 때문. 저자는 조조가 남긴 법령과 서한, 시 등을 통해 조조의 경제제민 사상과 인간경영술을 분석하고, 인간으로서의 조조를 재평가한다. 그는 조조야말로 동양사회에 합리주의와 실용주의를 선구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의 해석대로라면 조조의 지략과 용병술은 손자 이후 가장 뛰어났으며, 둔전제를 정착시켜 민생을 안정시켰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전쟁 사상자의 유가족을 위한 원호법을 마련하기도 했던 인본주의 정치가였다. 소설 《삼국지연의》와는 상반된 인물로서의 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조조의 인간적 매력이 잘 나타난 많은 일화와 고사를 흥미롭게 엮었다. 하지만 이 책은 조조라는 인물을 지나치게 격하시켰던 소설 《삼국지연의》에 반대한다는 저자의 의도 속에서 조조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인물로 읽는 사기》 시리즈(엄광용 엮음, 새로운사람들)는 사마천의 《사기》 속에 등장한 인물들에게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운다. '친구가 적이 되면 더 무섭다'(한비자), '덕을 행하면 천하를 얻는다'(은나라 탕왕), '급격한 개혁은 적을 만든다'(오기) 등 성공처세학·인간경영학·전략전술론의 세편으로 나누어 각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지혜를 소개하고 있다.

## 재평가 작업 신중히 이뤄져야

이상의 책들이 옛것을 오늘의 시각에서 재평가한 역사서라면 처음으로 완역되어 출판된 《정관정요》(오궁지음, 정에리시 옮김, 새물결)는 오늘날 그대로 읽어도 의미만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나라의 두번째 황제 태종 이세민의 정치철학을 기록한 이 책은 태종의 정치에 관한 언행을 태종 사후 50년경 오궁이라는 역사가가 10권 40편으로 편집한 서책이다.

태종은 한(漢)나라 이래 500년이 넘는 동안 혼란을 거듭하고 있던 중국을 통일하고 당나라 300년의 기초를 쌓은 성군. 《정관정요》는 태종이 위징, 방현령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신하들의 간의, 태종에게 올렸던 상소, 그리고 당시 취했던 정치적 조치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상적인 도덕정치가 가능했고, 어떻게 혼란한 중국을 마감하고 국제적인 문화국가인 당조 300년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이 책은 현대의 지도자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전을 다시 읽고, 역사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재평가하는 최근 흐름에 대해 출판계나 독자들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정관정요》를 펴낸 새물결의 조형준씨는 "기준에 출간되었던 고전들의 대부분은 출판품도가 열악했던 6, 70년대에 작업된 것들이라 완역된 책이 많지 않아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현대언어로 완역해서 다시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독자 김경기씨(회사원)도 "고전의 대부분은 요약본으로 읽었거나 이름만 알고 넘어간 것이 많은데 이렇게 완역되어 제대로 읽을 수 있어 반갑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오늘의 시각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장 정대현 교수는 "다르게 보기, 뒤집어 보기의 자세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만, 이미 장구한 역사를 통해 평가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일부러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난도질하는 작업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은주〉

